

# 한-EU FTA 협상 시작... 부작용 우려도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맨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1차 협상은 7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유럽연합은 농업의 민감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 통상외교의 기초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만큼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압박은 적고 혜택은 미국만큼”

맨델슨 집행위원은 이날 “방송·영화 등 시청각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제안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상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도, 한-유럽연합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한국과의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협상단에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한 협상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방, 조세, 문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주권과 직결된 사항은 유럽연합 대표부에 협상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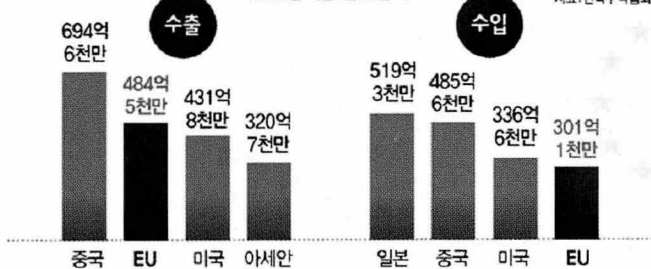
이번 협상에서 한국 쪽 수석대표를 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추진단장은 “농업도 유럽연합 스스로 민감한 분야라고 밝히는 등 우리가 좀더 여유있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유럽연합 교역·투자 규모는 한-미 규모를 웃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 수출시장이다. 또 세계 제1의 대한국 투자국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 4대 수출입 상대국 및 EU의 순위

(2006년 기준, 단위: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 한-미 반대 진영, “한-EU도 반대”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미국 못지않게 강한 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맨델슨 집행위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가 그렇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본부장도 “유럽은 기계·화

학·자동차·의약품·화장품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으며, 서비스에서는 금융·통신·택배·법률·회계 등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단의 한 실무관계자도 "농산물에서도 위스키·와인·치즈·돼지고기·닭고기 등의 개방 압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실행 관세율(4.2%)보다 한국(11.2%)이 훨씬 높은 것도 부담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유럽연합 협정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미 협상에 대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왜 또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유럽연합은 한-미 협상의 결과만큼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특히 자기들이 강한 분야의 개방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협정문에 있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건에 따라 유럽에 개방하면 미국에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경제권과의 협상에서도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7. 5. 7 / 한겨레 -

## EU産 술. 낙농품. 돼지고기 위협적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EU산 수입 포도주.위스키, 낙농품, 돼지고기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EU가 과거 칠레나 멕시코와의 양자간 협력협정 또는 FTA에서 상당수의 농축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 개방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협상력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 ◇ EU 경쟁력은 위스키.포도주가 으뜸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날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별비교우위(CAC) 지수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CAC 지수는 수입 금액 및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특정 수출품목이 다른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1보다 높을 수록 경쟁력이 크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기준 EU 농산물과 축산물의 대(對)한국 CAC지수는 각각 평균 1.06, 1.50으로 집계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운데 위스키.포도주 등 주류(酒類)가 6.80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효모류(5.12)나 식물성액즙(3.15), 코코아류(3.048), 감자전분 등 전분류(4.79), 음료(4.09), 화훼류(2.78) 등의 우위도 두드러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닭 등 가금류가 6.05로 1위였고, 낙농품(2.76), 가금육류(1.69), 돼지고기 등 포유가축 육류(1.37) 등도 기준 지수인 1을 웃돌았다.

반면 곡류(0.12), 감자.고구마 등 서류(0.10), 콩류(0.02), 과일류(0.31), 채소류(0.42) 등은 CAC 지수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 싱싱함이 유지되기 힘든데다, 가공품이 아닌 신선과일은 현재 검역상의 이유로 아예 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 국내 돼지고기, 낙농품 등 영향 클 듯

전체 품목 가운데 CAC 지수가 가장 높은 주류의 경우 현재 들어오는 EU산 술의 80%는 위스키, 나머지가 포도주다. 2005년 기준 2억2천585만달러어치 위스키와 3천777만달러어치 와인이 EU로부터 수입됐다. 현행 20~30% 수준인 주류 관세가 FTA로 철폐되면 수입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류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지리적 표시는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칠레와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고유상표를 보호토록 명시한 바 있다.

CAC 지수가 1.37인 포유가축 육류의 경우 광우병으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냉동삼겹살 중심으로 돼지고기만 들어오고 있다. 2005년 기준 EU산 냉동삼겹살 수입량은 5만3천t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가금육류의 6년간 CAC 지수 평균은 1.69지만,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5.65, 4.11로 치솟았다. 2003년을 전후로 미국과 태국 등 닭고기 수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덴마크로부터 냉동 닭다리 및 닭날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표적 관심 품목인 낙농의 경우 EU산 탈지분유와 치즈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현재 각각 30%, 10% 수준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관세철폐를 가정한 2003~2005년 EU산 냉동삼겹살 수입가는 1kg당 평균 3천548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산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EU산 냉동 닭다리와 탈지분유의 수입가격도 각각 국내산의 43%, 31% 수준에 그쳐 한.EU FTA가 타결되면 낙농품을 포함한 축산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곡류나 과일, 채소류 일부에서도 FTA 여파가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관세를 뺀 EU산 보리(맥아) 수입가격이 국산 맥주보리의 46% 수준이므로 관세가 없어질 경우 국내 맥주보리 생산 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산 복숭아 통조림과 포도주스 등도 경쟁력이 커 관세 철폐 이후 수입이 늘어나고, 토마토 역시 현재 EU산이 전체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 ◇ 민감품목 개방 예외 인정에 주력해야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칠레 멕시코와의 FTA에서 많은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 품목의 경우 역시 다양한 양허 방식을 도입했다.

2003년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협력협정에서 EU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유제품, 계란, 과일 및 채소 등을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칠레의 유제품, 콩, 밀가루, 식물유지, 마가린, 설탕 등도 개방 대상에서 빼줬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EU는 소,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유제품, 계란, 꿀, 절화류 등을 양허(개방) 대상에 넣지 않고 멕시코의 소,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유제품, 계란, 감자, 바나나, 메밀을 제외한 곡물, 볶은 커피, 설탕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인정했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에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전체 농축산물 무역 적자의 15%에 해당하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특히 EU는 육류, 낙농품, 과일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매우 커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경우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상당수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우리도 주요 민감품목을 제외하는 등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2007. 5. 7 / 연합뉴스 -